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 유입과 선택적 수용* - 『西禮須知』와 『戒禮須知』를 중심으로

권 두 연**

차 례

- | | |
|------------------------------|-------------------------|
| 1. 들어가기 | 1) 집옥재 장서와 규장각 소장본 |
| 2. 『西禮須知』·『戒禮須知』 간행과 텍스트 분화 | 2) 서학서로서의 유통과 수용 |
| 1) 존 프라이어와 서양 예법서 | 4. 두 예법서의 수용 방식과 번역의 논리 |
| 2) 두 예법서의 항목 구성과 배열 원리 | 1) 한문본과 한글본의 체제와 독자 |
| 3) 王韜 序의 禮觀과 텍스트 성격 | 2) 교제 중심의 번역과 재구성 |
| 3. 청말 서양 예법서의 유입과 조선 내 수용 양상 | 5. 마무리 |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세기 중후반 상해에서 편찬·출판된 서양 예법서 『西禮須知』와 『戒禮須知』의 간행 관계를 규명하고, 두 텍스트의 유입과 수용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근대 초기 서양 예법에 관한 지식의 선택적 수용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9499)

**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구조를 해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두 예법서는 동일한 출판 기획 속에서 간행되었음에도 예법을 조직하는 원리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西禮須知』가 교제 장면의 전개 과정에 따라 실친 규범을 배열한다면, 『戒禮須知』는 생활 범주별 금기와 규율을 정리한다. 두 텍스트에 실린 王韜의 序 역시 이 차이를 각각 문명 교류의 실용 규범과 일상 수양의 윤리 규범이라는 상이한 예관으로 뒷받침한다.

두 텍스트는 상해 서점 유통망과 고종의 집옥재 장서 체계를 통해 동일한 경로로 조선에 유입되었으나, 이후 수용 양상은 비대칭적으로 전개되었다. 『西禮須知』는 학부 교과서로 번역·간행되어 제도적 수용의 경로를 확보한 반면, 『戒禮須知』는 유입이 확인됨에도 번역·활용되지 않았으며 집옥재 장서 내에서도 예법서로 분명히 부각되지 않았다. 번역된 『西禮須知』 역시 언어적 전환에 그치지 않고 규범의 성격과 전달 방식을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한문본이 예법의 원리를 규범적 명제로 제시한다면, 한글본은 이를 구체적 행위 절차로 전환하여 실친 지식으로 재편한다. 이는 한글본이 새로운 독자층의 실천적 필요에 부응하여 재구성된 텍스트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본고는 근대 초기 서양 예법에 관한 지식의 수용이 단순히 외래 지식의 도입이 아니라, 당대의 교제 현실과 교육적 필요에 따른 선별과 재구성의 능동적 과정이었음을 밝힌다. 이는 『西禮須知』를 동아시아 번역서 출판과 지식 이동의 맥락 속에 재위치시키는 동시에, 번역되지 않은 텍스트의 위치까지 고려함으로써 서양 예법 지식의 선택적 수용을 입체적으로 해명하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주제어: 서례수지, 계례수지, 교제 규범, 번역과 재구성, 선택적 수용, 서양 예법

1. 들어가기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서양 지식의 유입은 서구와의 직접 접촉만이 아니라 청말 중국에서 번역·출판된 서학서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상해를 중심으로 전개된 번역·출판 활동은 서양의 학문과 제도, 과학기술뿐 아니라 생활 규범과 교제 방식까지 동아시아 각국에 전달하는 통로로 기능하였으며, 존 프라이어(John Fryer, 傅蘭雅)가 관여한 ‘須知叢書’ 계열의 서적들은 그러한 지식 이동의 구체적 실상을 보여준다. 1886년 상해에서 출판된 『西禮須知』는 이러한 맥락에서 간행된 예법서 가운데 하나로,¹⁾ 대한제국 학부가 수입·편집하여 1896년 교과서로 간행하고 다시 1902년 중간본을 발행할 때 한글본 『서례슈지』로도 함께 번역하여 배포한 서적이다. 이 일련의 유입 및 발행 과정은 이 책이 조선에서 단편적인 외래 지식에 머물지 않고 교육과 출판의 제도 속으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준다. 『西禮須知』는 개항 이후 서양인과의 접촉이 일상적 현실로 부상하는 국면에서 조선이 새로운 교제 질서와 생활 규범을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했는지를 보여주는 드문 자료이며, 근대 초기 ‘서례(西禮)’의 지식화와 제도화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동안 『西禮須知』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이 책의 성격과 의의를 밝히는 데 일정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 허재영은 『西禮須知』를 학부 편찬 교과서이자 근대 초기 화법 교육 자료로 파악함으로써, 이 책이 단순한 예절서가 아니라 수신·화법 교육의 실재를 담은 교재였음을 밝혔다.²⁾ 권두연은 『西禮須知』를 개항 이후 서양인과의 교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등장한 첫 번째 서양 예법서에 위치시키며, 학부 교과서 체제와 근대적

1) 『西禮須知』는 傅蘭雅가 1866년에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존하는 서적은 光緒 12年(1886)에 간행된 판본이다. 본고에서는 1886년 현존 판본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2) 허재영, 「화법 교육사의 차원에서 본 『서례슈지(西禮須知)』 연구」, 『화법연구』 29, 한국화법학회, 2015, 211-232쪽.

교제 담론의 형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 출현의 의미를 해명하였다.³⁾ 오지석은 일련의 개화기 서양예절서가 서양 예절의 소개에서 조선 내부의 수용과 변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보았다.⁴⁾ 이들 연구는 『西禮須知』를 학부 교과서, 서양 예법서, 개화기 교제에 관한 지식을 매개하는 텍스트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는 대체로 『西禮須知』가 조선에서 번역·간행되고 활용된 결과에 주목함으로써, 이 책을 조선 내부의 교육사·출판사·문화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 결과 『西禮須知』가 애초 청말 상해의 번역·출판 체계 안에서 어떠한 위치와 성격을 지니며 동일 계열의 텍스트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성립했는지, 나아가 조선이 왜 그 가운데 특정한 예법서만을 선택적으로 번역·수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지 않았다. 특히 『西禮須知』와 함께 간행된 『戒禮須知』의 존재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西禮須知』를 단독 텍스트로 파악해 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만약 『西禮須知』와 『戒禮須知』가 청말 번역·출판의 장에서 상호 연관된 예법서의 일부로 기획된 텍스트라면, 조선이 그 가운데 『西禮須知』만을 번역·간행하고 『戒禮須知』는 번역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발적인 누락이나 우연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조선이 서양 예법에 관한 지식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외교·교육·교제 현실에 부합하는 지식만을 선별적으로 취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西

3) 권두연,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 『반교어문연구』 제55집, 반교어문학회, 2020, 78-85쪽; 「근대 초기 지식의 편집과 중간 유통자에 대한 고찰」, 『반교어문연구』 제57집, 반교어문학회, 2021, 130-133쪽; 「교제의 필요성과 서양 예법서의 간행」, 『반교어문연구』 제61집, 반교어문학회, 2022, 140-141쪽.
4) 오지석, 「개화기 서양예절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55,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23, 203-236쪽.

『西禮須知』가 조선에 수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예법 지식은 번역되고 어떤 예법 지식은 배제되었는가 하는 선택의 구조를 핵심 문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바로 그 선택의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근대 초기 조선의 서양 예법에 관한 지식 수용을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과정으로 재인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西禮須知』와 『戒禮須知』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청말 상해의 편역·출판 체계 속에서 형성된 두 서양 예법서의 지식 구조와 분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기준은 상해 간행 한문본에 두되, 조선에서 간행된 한문본 및 한글본을 함께 참조하여 텍스트의 변용 양상을 검토한다. 아울러 『戒禮須知』를 동일 계열 예법서로 위치시키고, 그 항목 구성과 규범 내용, 서술 방식을 『西禮須知』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본고는 『西禮須知』를 조선 내부의 학부 교과서로만 다루는 기존의 시야를 넘어, 『戒禮須知』와의 관계 속에서 그 간행 배경과 텍스트 성격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두 서적의 간행 맥락과 항목 구성을 분석하여 청말 상해의 편역·출판 환경 속에서 서양 예법 지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되었는지 살펴본다. 3장에서는 두 텍스트의 조선 내 유입과 수용 양상을 고종의 장서 목록과 규장각 소장본을 통해 추적하여 『西禮須知』와 『戒禮須知』 사이에 나타나는 비대칭적 수용 구조의 형성 조건을 검토한다. 4장에서는 『西禮須知』의 번역 양상과 활용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이 서양 예법 가운데 어떠한 지식을 필요로 했으며 무엇을 선택적으로 번역 수용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검토는 『西禮須知』를 조선 내부의 교과서나 예법서의 맥락에 한정하지 않고, 청말 번역서 출판의 계열성과 동아시아 지식 이동의 맥락 속에 재위치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戒禮須知』와의 비교를 통해 지금까지 단독 텍스트로 다루어져 온 『西禮須知』의

성격을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조선에서의 수용이 서양 예법에 관한 지식 전반의 포괄적 도입이 아니라 특정한 필요와 조건에 따른 선별적 번역의 결과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근대 초기 서양 예법에 관한 지식 수용을 전략적 선택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 틀을 제시한다.

2. 『西禮須知』·『戒禮須知』 간행과 텍스트 분화

1) 존 프라이어와 서양 예법서

부란아(傅蘭雅)로 알려진 존 프라이어는 19세기 후반 중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번역가이자 출판 기획자이다. 그는 강남제조국 번역관에서 서양의 자연과학·기술 관련 서적을 번역·편찬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상해에서 『格致彙編』을 간행하고 格致書室을 중심으로 다수의 번역서를 조직적으로 출판함으로써 서양 지식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⁵⁾ 프라이어의 번역 활동은 개별 서적의 번역에 머무르지 않고, 서양의 학문과 제도, 생활 문화를 중국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지식 편성 사업으로 이해된다.⁶⁾ 특히 『格致彙編』이 서양 과학 지식을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로 재구성하여 소개하였고, ‘須知叢

5) 당시 기록에 따르면 “特將西文格致諸書 擇其有益於人者 繙譯華文 月出一卷 間卅”라고 하여, 서양의 과학 관련 저작 가운데 유익한 내용을 선별하여 중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간행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프라이어의 번역 활동이 학문 번역의 차원을 넘어 서양 과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선별·요약하여 보급하려는 기획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허재영, 「근대 중국의 서양서 번역·보급과 한국 근대 학문에 미친 영향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76집, 한민족어문학회, 2017, 72-73쪽 재인용.

6) 강미정·김경남,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의 중국 번역 서학서 수용 양상과 의의」, 『동악어문학』 71, 동악어문학회, 2017, 253-288쪽.

책' 계열의 입문서들이 학문 분야별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출판 기획이 서양 지식을 단순히 번역하는 차원을 넘어 이해 가능한 범주로 분류·정리하여 보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⁷⁾

이러한 번역·출판의 체계 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프라이어의 관심이 자연과학이나 기술 지식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양 문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과 생활 방식, 교제 질서 역시 번역의 대상이 되었으며, 『西禮須知』와 『戒禮須知』는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 아래 간행된 예법서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텍스트는 서양의 예절을 단편적으로 소개한 교양서가 아니라, 서양 사회를 구성하는 행위 규범과 생활 질서를 동아시아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번역 서학서의 한 범주를 이룬다. 이 점에서 프라이어의 예법서 간행은 과학 지식의 번역과 별개의 주변적 작업이 아니라, 서양 문명 전반을 실용적 지식으로 조직하여 보급하려는 출판 기획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西禮須知』와 『戒禮須知』가 동일한 시기, 유사한 편집 체계 아래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두 텍스트를 상호 무관한 저작이 아니라 일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상호 관련한 예법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西禮須知』와 『戒禮須知』의 간행은 청말 상해의 번역·출판 환경 속에서 서양의 생활 규범을 동아시아적 문맥 안에 배치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서양의 학문과 제도뿐 아니라 교제 방식과 일상 규율까지 번역 가능한 지식으로 조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두 텍스트는 프라이어의 구상한 번역 사업의 외연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西禮須知』가 조선에서 학부 교과서로 간행

7) 이 총서는 『地學須知』, 『化學須知』, 『量法須知』, 『算法須知』 등과 같이 학문 분야별 기초 지식을 설명하는 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양 과학의 기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입문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해정, 「集玉齋書籍目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9, 164-166쪽.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조선이 수용한 『西禮須知』는 고립된 개별 예법서라기보다 청말 상해의 번역·출판 체계 속에서 분화, 배치된 서양 예법 지식의 일부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 텍스트를 함께 검토하는 일은 『西禮須知』를 조선 내부의 교과서에 한정하지 않고, 동아시아 번역서 출판과 지식 유통의 맥락 속에서 재위치시키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2) 두 예법서의 항목 구성과 배열 원리

『西禮須知』와 『戒禮須知』는 모두 서양의 예법을 소개하는 텍스트이지만, 예의 내용을 조직하는 방식과 배열의 원리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두 서적은 공통적으로 서양인의 교제와 생활 규범을 다루고 있으나, 항목을 설정하는 기준과 서술의 전개 방식이 같지 않다. 따라서 두 책의 차이는 다루는 내용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서양 예법을 어떠한 질서와 범주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는가라는 텍스트의 구성 원리와의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西禮須知』와 『戒禮須知』의 항목 구성과 배열 원리

| 구분 | 『西禮須知』 | 『戒禮須知』 | 분석 |
|-------------|------------------|------------------|---|
| 총 항목 수 및 순서 | 8 | 8 | 순서대로 제시하면 『西禮須知』는 結交, 宴客, 拜客, 談絃, 用菸, 衣飾, 取樂, 零事, 『戒禮須知』는 飲食宜戒, 衣飾宜戒, 客房宜戒, 公處宜戒, 言辭宜戒, 拜客宜戒, 婦女宜戒, 總事宜戒 순이다. |
| 서두 구성 | 王韜 序, 본문 序, 總說 | 王韜 序 | 『西禮須知』는 총론적 설명을 먼저 두어 예의 성격과 기능을 해설한 뒤 본문으로 들어간다. 반면 『戒禮須知』는 별도의 총설 없이 바로 항목으로 진입한다. |
| 배열의 기본 원리 | 교제 장면과 관계 수행의 흐름 | 생활 영역과 규범 범주의 분류 | 『西禮須知』는 사람 사이의 만남과 사교 과정이 전개되는 순서를 따르고, 『戒禮須知』는 음식·복식·공간·여성 등 생활 범주별로 정리한다. |

| | | | |
|-------------|----------------|--------------------------|---|
| 첫 항목 | 結交(紹介·薦引) | 飲食宜戒 | 『西禮須知』는 인간관계의 성립에서 출발하고, 『戒禮須知』는 일상생활의 기본 행위에서 출발한다. |
| 중핵 항목 | 宴客, 拜客, 談敘 | 衣飾, 客房, 公處, 言辭 | 『西禮須知』는 접대·방문·대화처럼 교제 장면을 중심으로 하고, 『戒禮須知』는 몸가짐·공간·언어 사용 등 생활 규율의 세목을 중심으로 한다. |
| 여성 관련 항목 | 零事 등 모든 항목에 분산 | 婦女宜戒로 독립 | 『戒禮須知』는 여성 관련 내용을 별도 범주로 독립시켜 규범화한다. |
| 흡연 오락 관련 항목 | 用菸, 取樂 | 독립 항목 없는 대신 客房, 公處 등에 분산 | 『西禮須知』는 사교 장면에서 수반되는 행위를 별도 항목으로 제시한다. |
| 말미 구성 | 零事 | 總事宜戒 | 『西禮須知』의 零事は 앞 항목에 포괄되지 않는 사례를 덧붙이는 형식이고, 『戒禮須知』의 總事は 전체 규범을 종합하는 형식이다. |
| 텍스트 성격 | 교제 수행의 실천 지침 | 생활 규율과 금기의 범주화 | 『西禮須知』는 공적·사교적 관계 수행에 필요한 예법서이고, 『戒禮須知』는 일상적 규율과 경계를 범주화한 예법서이다. |

<표 1>에서 확인되듯 『西禮須知』는 본문 序와 總說을 통해 예의 의미와 기능을 먼저 설명한 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고 전개되는 순서에 따라 항목을 배열한다. 곧 「結交」에서 인간관계의 성립을 다루고, 이어 「宴客」과 「拜客」에서 손님을 맞고 방문하는 절차를 설명하며, 「談敘」에서 대화의 방식을 다룬다. 그 뒤 「用菸」와 「取樂」이 배치되고 마지막에 「零事」가 놓이는 구조는, 이 책이 서양 사회에서의 교제와 사교 활동을 하나의 연속된 장면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西禮須知』의 배열은 생활 영역의 분류라기보다 교제 과정의 흐름에 따른 장면 구성에 가깝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서양인과의 대면 접촉 상황에서 요구되는 예법을 익히기 위한 실천 지침의 성격을 띤다.

반면 『戒禮須知』는 별도의 본문 序나 總說 없이 곧바로 「飲食宜戒」에서 시작하여 「衣飾宜戒」, 「客房宜戒」, 「公處宜戒」, 「言辭宜戒」, 「拜客

宜戒], 「婦女宜戒」, 「總事宜戒」로 이어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 항목이 교제의 순서를 따라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복식·공간·언어·방문·여성·총사와 같이 생활 범주와 규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즉 『戒禮須知』는 관계가 전개되는 장면을 따라가며 예법을 설명하기보다,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지켜야 할 규율과 금기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같은 방문이나 대화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西禮須知』가 교제 장면 속의 행위로 제시한다면, 『戒禮須知』는 하나의 규범 범주로 독립시켜 배열한다. 이러한 구성은 이 책이 사교적 실천의 절차를 안내하기보다, 생활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예의와 경계의 목록을 제시하는 데 가까운 텍스트임을 드러낸다.

양자의 차이는 항목의 명명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西禮須知』의 「結交」, 「宴客」, 「拜客」, 「談敘」는 모두 교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나 장면을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에 비해 『戒禮須知』의 「飲食宜戒」, 「衣飾宜戒」, 「公處宜戒」, 「言辭宜戒」는 생활 영역이나 행위 범주를 먼저 제시한 뒤, 그에 적절한 예법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전자가 관계 수행의 과정성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후자는 규범 적용의 범주성을 앞세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西禮須知』가 마지막에 「零事」를 두어 앞 항목에 포섭되지 않는 여러 사례를 보충하는 반면, 『戒禮須知』는 「總事」를 두어 전체 내용을 수렴·정리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자가 구체적 장면의 누락을 메우는 방향으로 구성된 텍스트라면, 후자는 규범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텍스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열 원리의 차이는 두 책의 내용적 성격과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西禮須知』는 소개·연회·방문·대화와 같이 서양 사회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교섭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예법을 조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사교적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교제 지침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戒禮須知』는 음식, 복식, 객실, 공공장소, 언사, 부녀

등 일상생활의 세부 영역을 규범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 규율과 금기를 정리한 예법서의 성격이 강하다. 다시 말해 두 텍스트는 모두 서양 예법을 소개하지만, 『西禮須知』가 관계 맺기와 사교의 수행을 중심에 두었다면, 『戒禮須知』는 일상생활의 자기 규율과 경계를 중심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王韜의 序에서도 확인된다. 王韜는 전자를 외교와 교제의 실용성 차원에서, 후자를 일상과 윤리의 수양적 차원에서 각각 위치짓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西禮須知』와 『戒禮須知』의 차이는 단지 항목의 명명이나 세부 내용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두 텍스트가 서양 예법을 서로 다른 질서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西禮須知』는 서양 사회와의 접촉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제 장면을 중심으로 예법을 설명한다면, 『戒禮須知』는 일상생활의 여러 범주에서 준수해야 할 규율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이러한 차이는 두 책이 동일한 시기, 유사한 번역·출판 맥락 속에서 간행되었음에도 서로 다른 실용적 목적과 활용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훗날 조선에서 『西禮須知』가 번역·간행의 대상으로 선택되고, 교제와 교육의 장에서 활용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3) 王韜 序의 禮觀과 텍스트 성격

『西禮須知』와 『戒禮須知』에는 모두 王韜의 序가 수록되어 있다. 동일한 인물이 비슷한 시기 두 예법서의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이들 텍스트가 단순히 병렬적으로 간행된 서적이 아니라 일정한 문제의식 아래 함께 이해될 수 있는 저작군임을 가리킨다.⁸⁾ 동

8) 王韜는 傳蘭雅와의 교류 속에서 『西禮須知』의 서문을 작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西禮須知』 序는 1885년에, 『戒禮須知』 序는 1886년에 쓰였고, 두 책의 간행은 모두 1886년이다. 또 王韜는 『戒禮須知』를 아직 다 읽지 못한 상태에서 序를 쓰고 있음을 밝혀 두었다.

시에 두 序는 서양 예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王韜는 두 책을 모두 서양의 예를 소개하는 유익한 저작으로 평가하면서 서도, 각각의 序에서 예의 기능과 적용 범위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항목 배열과 구성 원리의 차이를 담론적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게 한다.

먼저 『西禮須知』의 序에서 王韜는 예를 문명 교류와 국제 교섭의 실천 규범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그는 “예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 마땅함을 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예의 상대성과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서가 비록 서로 다르지만 그 예가 인정에 합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여 서양의 예 역시 인간 사회의 보편적 질서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⁹⁾ 여기서 중요한 것은 王韜가 서양 예법을 이질적 풍속으로 제시하지 않고, 중국과 서양의 차이를 전제하면서도 상호 이해 가능한 질서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王韜가 활동했던 19세기 후반 상해라는 공간적 맥락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상해는 중서 문화가 교차하는 접촉 지대로서, 王韜는 이곳에서 서양을 또 하나의 문명 세계로 인식하고 그 실용성과 교육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였다. 김경혜는 이러한 王韜의 경험이 전통적인 화이관을 상대화하고 서양 문명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¹⁰⁾ 이와 같은 인식 변화는 서양의 예를 화이 질서 바깥의 이질적 관습으로만 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참조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규범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王韜는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다만 예로써 유지될 뿐”이라고 하여 예의 핵심 기능을 인간관계의 유지와 교섭의 원활함에 두

9) 인용 원문은 “可見禮也者隨處而各異，因時以制宜。何況中西之攸殊，而遠至於數萬里以外哉。惟是先王制禮本乎人情，其繁簡疏密之間具有深意。恐其相狎也以禮莊之，恐其相睽也以禮聯之” 王韜, 「序」, 傅蘭雅輯, 『西禮須知』, 1886, 一a.

10) 김경혜, 「上海에서의 王韜」, 『한중인문학연구』 28, 한중인문학회, 2009, 309-331쪽.

며,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한 권씩 지녀야 한다”고 하여 이 책의 효용을 외교와 대외 교섭의 맥락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한다.¹¹⁾ 즉 『西禮須知』의 序에서 예는 일차적으로 서양과 접촉하는 상황에서 실수를 피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기 위한 공적·실천적 규범으로 의미화된다. 이 점에서 王韜의 序는 『西禮須知』를 서양 사회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교제 지침서로 읽게 하는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

반면 『戒禮須知』의 序에서 王韜의 논의는 보다 일상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동한다. 그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늘 행하는 일을 사소하게 여기기 쉽지만, 한 번의 무례와 한 마디 말의 실수가 원망과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의 문제를 대외적 교섭의 성공 여부보다 일상생활 속 인간관계의 조정과 수양의 문제로 끌어온다. 더욱이 그는 예를 외면적 형식이나 처세술로 이해하지 않고, 항상 ‘경(敬)’으로 삼가며 몸을 닦는 공부와 연결시키고 있다. 나아가 『戒禮須知』의 내용을 “孔子”의 “「鄉黨」”과 『禮記』의 “「曲臺」·「內則」”과 나란히 병치함으로써¹²⁾ 서양 예법을 유교적 수양론과 완전히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일상적 규범과 자기 절제의 차원에서 해석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여기서 예는 외국과의 접촉에서 요구되는 임기응변의 지식이라기보다, 몸가짐과 언행을 바로잡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윤리적 실천의 문제로 파악된다. 결국 『戒禮須知』의 序는 이 책을 서양식 생활 규범의 소개서인 동시에, 일상에서 삼가고 경계해야 할 행위의 규범집으로 읽게 한다.

이처럼 두 序는 동일하게 서양 예법을 다루면서도 예를 배치하는 좌표가 다르다. 『西禮須知』의 序는 서양과의 접촉, 외교, 교제의 실용성에

11) 인용 원문은 “夫人所以交際者，不過禮以維持之而已。中西雖殊，其禮之合乎人情則一也”，“奉使出洋之人，要宜人置一編。否則一有失禮，徒貽遠方笑” 王韜，「序」，『西禮須知』 앞의 책，-b.

12) 인용 원문은 “孔子鄉黨之記曲臺內則之篇” 王韜，「序」，傅蘭雅 輯，『戒禮須知』，1886，-b.

무게를 둔다면, 『戒禮須知』의 序는 일상적 언행, 몸가짐, 수양의 윤리성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전자에서 예는 타자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공적 규범으로 기능하고, 후자에서 예는 자기 통제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일상 규범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차이는 앞 절에서 확인한 두 텍스트의 배열 원리와의도 긴밀하게 호응한다. 곧 『西禮須知』가 소개·방문·연회·대화와 같은 교제 장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戒禮須知』는 음식·복식·공공장소·언사 등 생활 범주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 王韜의 序는 바로 이러한 차이를 각각 문명 교류의 실용 규범과 일상 수양의 윤리 규범이라는 두 층위의 예관(禮觀)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두 책은 동일한 출판 맥락 속에서 간행되었으나, 그 예관은 동일하지 않으며, 바로 그 차이가 각각의 활용 가능성을 달리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뒤에서 살펴볼 조선에서의 수용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선이 『西禮須知』를 수입·간행하여 학부 교과서로 활용한 것은 단순히 서양 예법 일반을 수용한 결과라기보다, 서양과의 접촉과 교제에 실질적으로 요청되는 예법 지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王韜의 序는 『西禮須知』와 『戒禮須知』가 각각 어떤 예관 아래 읽힐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인 동시에, 조선의 선택적 수용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西禮須知』와 『戒禮須知』는 동일한 출판 기획 속에서 간행되었으나 예법 지식을 조직하는 방식과 그 활용의 지향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西禮須知』가 교제 장면을 중심으로 서양 사회와의 접촉에 필요한 실천적 규범을 제시한다면, 『戒禮須知』는 생활 범주와 규율을 중심으로 일상적 언행과 자기 수양의 질서를 강조한다. 이러한 차이는 두 텍스트가 동일한 지식 계열에 속하면서도 각기 다른 수용 가능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선에서 『西禮須知』만이 간행, 배포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나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는 수용의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어떤 예법 지식이 조선의 현실 속

에서 번역 수용할 만한 것으로 선택되었는가에 있으며, 다음 장에서는 그 조건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청말 서양 예법서의 유입과 조선 내 수용 양상

1) 집옥재 장서와 규장각 소장본

조선에서 『西禮須知』와 『戒禮須知』의 유입과 수용을 논의하기 위해 우선 두 텍스트가 실제로 조선의 장서 체계 안에 편입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西禮須知』는 학부 편찬 교과서와 한글본 『서례슈지』를 중심으로 비교적 분명한 수용의 궤적이 드러나지만 『戒禮須知』의 경우에는 조선 내 유입과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집옥재 장서 목록에서 이 두 서적의 서지 정보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집옥재는 고종의 서재이자 각국 공사를 접견하던 집무처 기능을 수행한 전각으로, 19세기 후반 이후 중국에서 간행된 서적을 중심으로 조선본, 일본본 및 서양 서적이 함께 소장된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집옥재 장서는 고종대 후반 궁중의 서학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군이며, 특히 중국에서 간행된 서학서들이 어떠한 범주 아래 수집·정리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¹³⁾

이 집옥재의 서적들을 조사해 엮은 『集玉齋書籍調查記』¹⁴⁾의 기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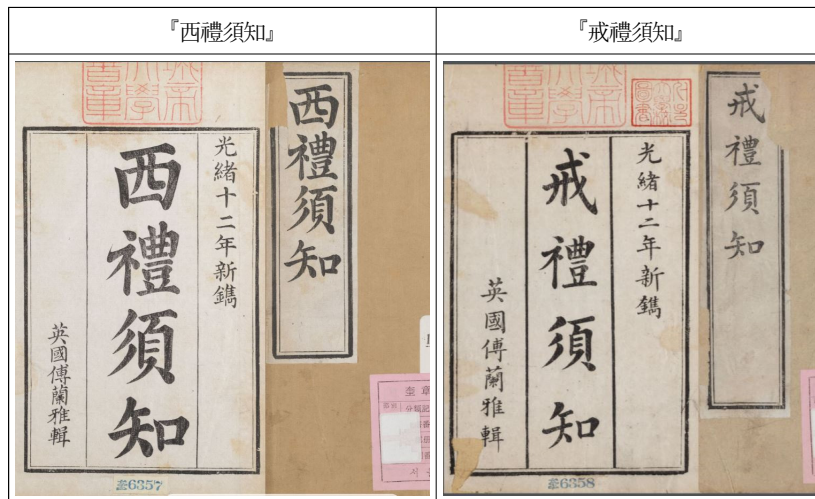
13) 장영숙, 「『集玉齋書目』 분석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서적 수집 실상과 활용」, 『한국근현대사연구』 61,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7-39쪽; 윤영도, 「19세기 중엽 관립 번역기구와 근대 언어공간의 형성」, 『중국어문학논집』 29, 중국어문학연구회, 2004, 272쪽.

14) 『集玉齋書籍調查記』(奎11705)는 융희 연간 집옥재에 소장된 서적을 수록한 1책 123장 분량의 목록 자료이다. 권말에 “隆熙元年十二月 日/調查員前副卿李鍾泰 [印]”로 미루어 이종태 편이 필사본으로, 1907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集玉齋書籍調查記』의 기록은 규장각에 현존하는 소장본과도 대응한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西禮須知』와 『戒禮須知』가 모두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청구기호가 부여된 현존본으로 확인된다. 특히 두 텍스트에 동일한 집옥재 장서인이 남아 있어 두 텍스트가 동일한 왕실 장서의 목록과 소장 맥락 속에서 파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2>와 같이 두 책에는 집옥재 인기가 확인되며, 청구기호 역시 궁중 수입 서적의 정리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서지 사항에 따르면 『西禮須知』는 奎中6072, 『戒禮須知』는 奎中6071로 등록되어 있고, 편저자는 모두 傅蘭雅(英)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두 책 모두 光緒 12年(1886)에 간행된 1冊으로, 王韜의 序를 수록하고 있으며, 분류상 모두 子部 西學類에 속한다.¹⁷⁾

<표 2> 규장각 소장 『西禮須知』와 『戒禮須知』 표지 및 서지 정보



하면 이를 『西禮須知』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

17) <표 2>의 이미지 자료와 서지 정보는 규장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아울러 두 서적의 판식과 체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 | |
|--------------|---------------------|--------------|-------------------|
| 원서명 | 西禮須知 | 원서명 | 戒禮須知 |
| 현대어서명 | 서례수지 | 현대어서명 | 계례수지 |
| 청구기호 | 奎中6072 | 청구기호 | 奎中6071 |
| 편저자(한자) | 傅蘭雅(英) 輯 | 편저자(한자) | 傅蘭雅(英) 輯 |
| 편저자(한글) | 부란아(영) 집 | 편저자(한글) | 부란아(영) 집 |
| 판본사항 | 古活字本 | 판본사항 | 新式活字 |
| 간행지 | [刊地未詳] | 간행지 | [刊地未詳] |
| 간행자 | [刊者未詳] | 간행자 | [刊者未詳] |
| 간행연도 | 光緒12年(1886) | 간행연도 | 光緒12年(1886) |
| 책권수 | 1冊(29張) | 책권수 | 1冊(34張) |
| 책크기 | 20.2×13.2cm | 책크기 | 20×12.7cm |
| 서, 발, 권수, 권말 | 序: 光緒乙酉(1885). 王韜 | 서, 발, 권수, 권말 | 序: 光緒仲夏, 王韜 |
| 소장본 | 傅蘭雅의 原名은 John Fryer | 소장본 | 傅蘭雅原名: John Fryer |
| 인기 | 集玉齋 | 인기 | 集玉齋 |
| 사부분류 | 子部 西學類 | 사부분류 | 子部 西學類 |
| | | M/F번호 | 05-16-51-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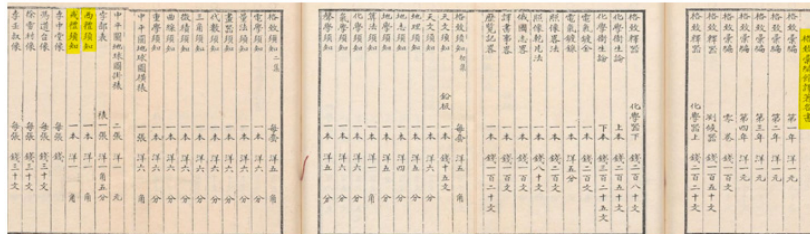
이 같은 정보는 『集玉齋書籍調査記』에 나타난 목록상의 기록이 단순히 서목에 그치지 않고 현전하는 규장각 소장본과 대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西禮須知』와 『戒禮須知』는 장서 목록에 이름만 남아 있는 서적이 아니라, 실제 유입본의 존재가 현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텍스트이다. 이는 두 책의 조선 유입을 가정이나 추정이 아닌, 서지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차 검증을 통해 사실의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두 책은 동일한 편찬자와 간행 연도, 같은 이의 序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출판 맥락 속에 놓여 있었다. 다만 이러한 공통성이 조선에서의 수용 양상으로까지 동일하게 작동되지는 않았기에 이후 유통 경로와 활용 방식은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서학서로서의 유통과 수용

『西禮須知』와 『戒禮須知』의 조선 유입은 개별 서적의 우연한 전래라기보다, 19세기 후반 중국 번역 서학서의 유통망과 조선 왕실의 서적 수집 방식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⁸⁾ 특히 집옥재에 『上海書莊各種

18) 강미정·김경남, 앞의 논문, 253-288쪽.

書籍圖帖書目』이 소장되어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¹⁹⁾ 이 책은 1888년 상해 16개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던 도서 목록을 정리한 자료로, 서점별로 서명, 가격, 판중 등을 기록한 판매 서목이다. 이 책에 수록된 서점 가운데 格致書室은 “江南製造總局繙譯各種西書”, “格致彙編館譯著名書”, “益智書會譯著名書”, “各埠中西人譯著名書” 등의 번역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 프라이어와 강남제조총국, 『격치회편』 계열의 서학서가 상해의 서점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해정은 상해에서 판매되던 서명이 집옥재 목록에 다시 나타나는 양상에 주목하여 조선 왕실이 판매 목록을 필사한 뒤, 필요한 서적을 선별하여 구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²⁰⁾ 본고에서 살펴볼 『西禮須知』와 『戒禮須知』의 유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에 『西禮須知』와 『戒禮須知』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 格致書室圖書價目 중 《西禮須知》와 《戒禮須知》

- 19) 이 자료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고 본고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의 원문이미지를 활용하였다.(최종 접속일 2026.04.21) 자료의 첫 장에 ‘集玉齋’와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어 집옥재에 소장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 20) 이해정은 19세기 후반 상해를 중심으로 출판과 서적업이 성행하는 가운데, 서점들이 영국 조계지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북경 유리창은 물론 천진·북주·광주·홍콩 등지에도 분점을 두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정보는 상해에서 판매되던 서학서가 지역적 산물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적 서적 유통망 속에서 이동,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조선 왕실 역시 이 정보를 접하고 참조했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이해정,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에 나타난 19세기 후반 중국서적 판매와 조선유입』, 『서지학연구』 80, 한국서지학회, 2019, 361-379쪽.

위 자료에서 확인되듯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에 수록된 「格致書室圖書價目」에는 『西禮須知』와 『戒禮須知』가 나란히 제시되어 있으며, 그 판매 목록의 일부 서명은 『集玉齋書籍調查記』에 필사되어 전한다. 이는 앞서 이해정이 제기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로, 두 텍스트의 유입을 “서양 예법서의 전래”라는 단일한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 상해 서점의 판매 목록을 입수, 필사하고 그 가운데 일부 서적을 선별·수집하는 과정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텍스트의 조선 유입은 서구 예법 지식의 직접적 수용이라기보다, 상해를 매개로 번역·간행된 중국 서학서가 조선 궁중의 장서 체계 안으로 편입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두 텍스트의 이후 행로는 동일하지 않다. 『西禮須知』는 조선에서 학부 편찬 교과서로 편집·간행되고, 다시 한글본으로도 번역·출판되면서 제도적 수용의 경로를 확보하였다.²¹⁾ 반면 『戒禮須知』는 집옥재 목록과 규장각 현존본을 통해 유입 사실이 확인됨에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간행되거나 교육 자료로 전면화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두 텍스트의 조선 내 수용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과 재배치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과 『集玉齋書籍調查記』의 배열 차이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가 상해 서점의 판매 질서를 반영하는 자료라면, 후자는 조선 왕실이 실제로 입수한 뒤 자국의 분류 체계에 따라 재정리한 목록이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텍스트가 유통 단계에서는 동일 범주로 제시되었더라도, 수용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지식 범주 속에 재배치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는 두 텍스트가 조선 내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서지적 징후로 읽힌다.

21) 허재영이 지적하듯 『西禮須知』는 근대식 학제 도입기의 수신 교과서로 편입되었고, 서양인과의 교제와 관련된 지식이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는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었다. 허재영, 앞의 2015 논문 참조.

특히 이러한 차이는 이후 수용의 비대칭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集玉齋書籍調查記』에서 『西禮須知』가 기입된 위치에는 『富國策』이나 『中東條約』과 같은 국가 경영이나 세계 정세와 관련된 서적들이²²⁾ 함께 배열되어 있는 반면, 『戒禮須知』가 놓인 면에는 『海戰用砲說』, 『克鹿卜』, 『各種砲用度數』, 『營壘圖記』, 『行軍要訣』, 『軍機古事』, 『臨陣管見』 등 군사·전술·무기 관련 서적들이 배치되어 있다.²³⁾ 주목할 것은 이 두 인접 군집이 각각 내용상 일관된 주제 범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西禮須知』 주변에는 지리·해외전문·외교·국제관계 서적이, 『戒禮須知』 주변에는 군사·전술·무기 관련 서적이 집중되어 있어, 이 목록의 배열이 물리적 수납 순서가 아니라 일정한 주제 분류 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열 방식을 고려하면, 『戒禮須知』가 조선 내에서 예법서로 명확히 범주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추정에 그치지 않고 『集玉齋書籍調查記』와 같은 서지적 배열의 구체적 양상에 의해 일정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이 배열만으로 조선에서의 인식 방식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서지적 패턴은 이후 『戒禮須知』가 번역의 대상으로 부상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결국 조선에서 『西禮須知』와 『戒禮須知』의 유입은 상해 서점 네트워크와 조선 왕실의 서적 수집 체계라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이후의 가시화와 활용 양상은 비대칭적으로 전개되었다. 『西禮須知』는 번역과 교과서 편입을 통해 제도적 수용의 경로를 확보한 반면, 『戒

22) 『西禮須知』와 함께 제시된 서적은 『地輿興異名錄』, 『基談臺疆小志』, 『談瀛錄』, 『中法和戰曲直記』, 『中西和戰曲直記』, 『海道說』로 지리와 해외 견문록, 외교 및 국제 관계 서적임을 알 수 있다.

23) 이태진, 「1880년대 고종의 개화를 위한 신도서 구입사업」,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302쪽. 또 윤지양이 정리한 <표1> 규장각 소장 강남제조국 출간 서적을 참고하면 『臨陣管見』(병학-군사작전)으로 구분되고 나머지도 검색하면 대부분 병서로 소개된다. 윤지양, 『고종, 근대 지식을 읽다』, 산지니, 2020, 46-48쪽.

『禮須知』는 장서와 서목의 차원에서는 확인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화되지 않았다. 『戒禮須知』가 번역의 대상으로 부상하지 못한 데에는 복합적인 조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 王韜가 序에서 이 텍스트를 孔子의 「鄉黨」 편이나 『禮記』의 「曲臺」·「內則」과 나란히 병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戒禮須知』의 규범 내용이 조선의 유교적 수양 체계와 상당 부분 중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 텍스트는 서양 예법서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기존 규범 질서와 변별되는 새로운 지식으로서의 변별성이 약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더하여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집옥재 장서 목록 내에서 『戒禮須知』가 군사·전술·무기 관련 서적들과 인접 배열되어 있었다는 서지적 정황은, 이 텍스트가 조선 내에서 예법서로 명확히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교 규범과의 내용적 중첩과 장서 분류 과정에서의 예법서 범주 이탈이라는 이중의 조건이 결합되면서 『戒禮須知』는 번역의 대상으로 가시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유통 경로를 통해 들어온 두 텍스트가 서로 다른 지식 범주 속에 재배치되고, 상이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조선에서의 수용이 단순히 외래 지식의 수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과 재구성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제는 두 텍스트의 유입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예법 지식이 번역과 제도화를 통해 가시화되었는가에 있다. 이는 곧 다음 장에서 다룰 『西禮須知』의 번역 양상과 조선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4. 두 예법서의 수용 방식과 번역의 논리

1) 한문본과 한글본의 체제와 독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西禮須知』와 『戒禮須知』는 모두 조선에

유입되었음에도 이후의 행로는 비대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번역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예법 지식이 조선의 교제 현실과 교육 체계 속에서 번역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는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西禮須知』의 번역 양상과 재구성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에서 『西禮須知』가 간행되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애초 한문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출판된 후, 重刊되면서 한글로 번역되어 보다 확장된 새로운 독자층을 향해 재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재구성의 구체적인 양상은 한문본 『西禮須知』와 한글본 『서례슈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두 텍스트는 「總說」과 「結交」, 「宴客」, 「拜客」, 「談絃」 등 항목 구성과 배열의 큰 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체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조선에서의 번역이 원 텍스트의 구조를 해체하거나 재편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배열 원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서술 방식과 독자 지향, 나아가 규범의 기능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문본이 서양 예법의 원리와 규범을 압축된 문장으로 제시하며 규범의 작동 조건을 추상적으로 정식화하는 번역 서학서의 성격을 지닌다면, 한글본은 이를 해설적이고 교훈적인 문체로 풀어 서술함으로써 독자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있다.

예컨대 한문본 「總說」은 “設立交接禮貌, 以聯民情, 使其不越範圍, 以保身家”²⁴⁾라 하여 교제와 예모를 제도화함으로써 인간 관계를 결속시키고, 행위가 일정한 범위(範圍)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여 몸과 집안을 보호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서술은 예법을 인간 관계를 매개하는 동시에 그 관계를 규범적 경계 안에 두어 개인의 안전과 사회적

24) 「總說」, 『西禮須知』, 학부편집국, 1902(重刊), 1쪽.

안정을 확보하는 장치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如無禮貌以限之，則幾淆而莫辨”²⁵⁾이라는 구절은 예가 사회적 위계와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분별의 기준으로 작동함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비해 한글본은 예를 “스릅마다 잡시 써나지 못홀 일”이자 “신명과 직산을 보호호는 울타리”²⁶⁾로 제시함으로써, 동일한 규범을 개인의 생존과 일상적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로 재의미화한다. 이때 한문본의 ‘範圍’와 ‘限之’가 외부로부터 설정된 질서의 경계를 지시한다면, 한글본의 ‘울타리’는 개인이 스스로 의지하는 보호 장치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기능한다. 이 차이는 번역 과정에서 서술을 평이하게 바꾼 데 그치지 않고, 예의 기능을 사회 질서의 유지에서 개인의 실천적 효용으로 이동시키는 의미의 재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항목의 명명 방식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문본이 행위나 장면을 개념화한 표제를 사용함으로써 각 항목을 하나의 압축된 규범 범주로 제시한 데 반해, 한글본은 이를 「친구 사귀는 법」, 「손님을 청하야 잔치호는 법」, 「질기는 일」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표현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호는 법’과 같은 표제 형식은 항목을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용어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항목이 수행하는 역할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문본의 표제가 규범의 범주와 원리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한글본의 표제는 독자가 실제 상황에서 따라야 할 행위 절차를 제시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결국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무엇을 설명하는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텍스트의 성격이 개념 범주의 제시에서 구체적 행위 지침 제시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글본이 독자의 학습과 실천을 전제한 교재

25) 같은 곳.

26) 「총론」, 『서례슈지』, 학부편집국, 1902, 1쪽.

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술 방식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문본이 규범을 제시하면서도 비교적 서술적이고 일반화된 문장을 통해 관계 질서와 예의 원칙을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한글본은 특정 상황을 설정한 뒤 그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서술 방식을 취한다. 예컨대 한문본에서 소개나 방문과 관련된 규범이 교제의 원칙이나 관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데 비해, 한글본에서는 “소개하는 일은... 덕접하느니라”, “그 집에 드러갈 썩에 모자와 집핑이를 가지고 식당가치 드러가지 말지라”²⁷⁾와 같이 구체적 상황을 전제하고 그에 따른 행위 절차를 명령형으로 제시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홀디니라’, ‘...하느니라’와 같은 종결 형식은 규범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서술적 특징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의 변화는 문체적 차이를 넘어 텍스트가 상정하는 독자층의 전환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한문본이 일정한 한문 독해 능력을 갖춘 지식인층을 전제로 하여 예법을 개념과 원리의 이해를 통해 내면화할 것을 요구한다면, 한글본은 한문 독해 능력을 전제하지 않는 보다 확장된 독자층을 상정하며 이를 실제 교제 상황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위 지침으로 재편한다. 특히 명령형 서술과 구체적 상황 설정은 독자를 규범의 해석자가 아니라 수행자로 위치시키며, 텍스트를 일종의 실천 규범으로 기능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글본의 서술 방식은 새로운 독자 환경과 사용 맥락에 맞추어 규범의 전달 방식을 재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7) 「친구 찾는 법」, 『서례슈지』 앞의 책, 18쪽. 이 구절의 전문은 “그 집에 드러갈 썩에 모자와 집핑이를 가지고 식당가치 드러가지 말지라 문일 불연하면 그 부인이 조하 아니하리니 이는 타인의 집을 자기 집과 갖치 안다함이니 엇지 실례가 아니리오”이고 원문은 進屋時, 帽與杖應執至客房。如留穿堂內, 恐女主怪爲不恭, 似以主人之家爲自己家也이다. 「拜客」, 『西禮須知』 앞의 책, 16쪽.

결국 한글본 『서례슈지』는 한문본 『西禮須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그 서술 방식을 조선의 독자층에 맞게 변환한 결과, 새롭게 재구성된 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이 실제 독자층의 변화와 맞닿아 있었음은 한글본의 유통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최근 한글본 『서례슈지』가 당대 세책을 취급하는 곳에서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²⁸⁾ 세책집은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상업적 도서 대여점으로, 조선 후기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중요한 서적 유통망으로 기능하였다.²⁹⁾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세책은 특히 국문소설을 중심으로 여성 독자와 새로운 일반 독자층의 독서를 확장시켰으며 실제 세책 대출장부에는 대출자에 관한 다양한 내용, 가령 대출자의 성명, 거주지, 작품명, 대출 일자, 담보물, 외상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세책집이 체계적인 대여 및 회수 장치였음을 보여준다.³⁰⁾ 이러한 맥락에서 유춘동이 소개한 『서례슈지(西禮須知)』에 첨부된 부속 자료인 「신소설 식책집의 주의」는 이 책이 세책집 유통망 안에서 실제로 취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글본 『서례슈지』가 학교나 특정 지식인층에 한정되지 않고 한글 독서를 매개로 형성된 보다 넓은 민간 독자층 속에서도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한글본 『서례슈지』의 세책 유통은 이 텍스트가 개항 이후의 새로운 교제 현실 속에서 실용적 예법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유용한 단서라 할 수 있다.

28) 유춘동에 의해 『서례슈지(西禮須知)』에 세책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언급한 자료가 소개되었다. 한글본 『서례슈지』가 당대 책을 대여해 주는 세책집에서 취급되었다는 사실은 보다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유춘동, 「『서례슈지(西禮須知)』에 첨부된 「신소설 식책집의 주의」에 대하여, 『근대서지』 제28호, 근대서지학회, 2023, 57-64쪽.

29)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호, 진단학회, 2005, 263-297쪽.

30) 전상욱, 「세책 대출장부 연구1-세책 대출장부의 유형과 실상」, 『열상고전연구』 27집, 열상고전연구회, 2008, 361-396쪽.

정리하면 한문본이 서양 예법의 구조와 원리를 전달하는 번역 서학서라면, 한글본은 이를 구체적인 교제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재편한 교육용 규범서에 가깝다. 이 차이는 조선에서의 수용이 서양 예법에 관한 지식의 번역에 그치지 않고, 예상 독자와 실제 활용 맥락을 고려한 선별과 재구성의 과정을 거쳤음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西禮須知』의 번역은 서양 예법 지식의 전면적 도입이 아니라, 교제와 교육의 현실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실천 가능한 형태로 재조직한 작업이었으며, 이러한 번역 양상은 조선의 서양 지식 수용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 교제 중심의 번역과 재구성

한문본 『西禮須知』와 한글본 『서례슈지』를 대조하면, 조선에서의 번역이 단순한 언어 전환을 넘어 교제 행위 전반을 조직하는 규범 체계로 재구성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교제는 관계 형성-담화-집단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회적 행위로 특히 「結交」, 「談敘」, 「宴客」의 세 항목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각각 관계의 형성, 담화의 운영과 상호작용, 집단적 교섭 상황을 다루는 항목으로, 교제의 주요 과정을 구성한다. 이들 항목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면, 『西禮須知』가 조선에서 일반적인 예절서가 아니라 교제 상황을 중심으로 한 규범서로 재구성되었다는 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結交」는 교제 관계의 형성과 개시 방식을 다루는 항목으로, ‘紹介’와 ‘薦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문본은 “凡行介紹之事 必先兩人情投意合 方可爲之”³¹⁾와 같이 관계 형성의 원칙을 규범적 명제로 제시하며, 특정 상황에서 소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반면 한글본은 이를 “사람의 친구 사귀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스니 일은 소개함이고 일은 천거함이라”³²⁾와 같이 관계 형성의 유형을 먼저 제

31) 「結交」, 『西禮須知』 앞의 책, 3쪽.

시한 뒤,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소개의 적절성이나 시기 판단과 같은 추상적 규범은 “소개하는 레를 헝치 아닐 거시오”라든가 “모즈를 벗고 머리를 수기여”³³⁾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 지침으로 전환된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관계 형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교제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순차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한문본이 관계 형성의 조건과 원칙을 제시한다면, 한글본은 이를 실제 교제 상황에서 수행 가능한 절차로 재구성한다. 이는 관계 형성의 과정이 규범의 제시에서 수행 가능한 교제 행위의 조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談敍」는 교제 관계가 형성된 이후 이루어지는 담화의 운영 방식을 다루는 항목이다. 허재영은 이 항목에 주목하여 『西禮須知』가 교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을 규범화한 텍스트임을 지적한 바 있다.³⁴⁾ 이는 담화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밝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한문본은 “數人相遇, 必先慎言, 不可常引一事相談”, “與人相談, 不可以自己本業爲言”, “爲父母者, 不可誇說子女所有奇怪言語, 及小聰明之處”³⁵⁾와 같이 말의 절제와 화제 선택의 적절성을 강조하며, 담화를 교제의 질서와 체면을 조정하는 규범적 행위로 제시한다. 이들 조항은 담화가 정보 전달에 국한되지 않고 대인 관계 속에서 조절되어야 할 행위임을 시사한다. 한글본은 “스름이 만날 썩에 반다시 언어를 삼가고 썩 항상 한가지 일만 말흐지 말 거시오”, “스름과 슈작홀 썩에 자기의 싱업을 말흐지 아닐거시오”³⁶⁾와 같이 금지형 명령문으로 발화의 범위를 분명히 제한하는 한편, 그러한 말이 여러 사람에게

32) 「친구사귀는 법」, 『서례슈지』 앞의 책, 2쪽.

33) 같은 책, 3쪽.

34) 허재영, 앞의 2015 논문, 221-226쪽.

35) 「談敍」, 『西禮須知』 앞의 책, 20-21쪽.

36) 「친구와 슈작흐는 법」, 『서례슈지』 앞의 책, 24-25쪽.

흥미를 주지 못하거나 억지스러운 객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덧붙여 설명한다. 곧 한글본은 발화 규범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청중의 반응과 교제의 분위기에 미치는 결과까지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천적인 담화 지침으로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宴客」은 교제 관계가 공적인 상황 속에서 확장되고 재확인되는 집단적 교제의 장면을 다루는 항목이다. 이 항목에서 한문본과 한글본은 연회 상황을 서술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한문본은 연회 상황에서 요구되는 예법을 조건과 원칙의 언명 방식으로 제시한다. 가령 “客至客房聚集, 男客當與女客相配應由男主或女主先爲派定, 配客之事, 不可有誤”³⁷⁾라 하여, 남녀 손님의 짝 배정이 주인에 의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착오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직접 명시한다. 한글본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손님이 식당에 모이거든 남자 손님으로 하야곰 각각 부인 손님의 향하야 디접게 하되 그 법은 남녀근 주인된 슝름이 먼저 덩홀 거시오”³⁸⁾라 하여 “配客之事, 不可有誤”라는 당위적 규범 언명을 탈락시키는 대신 행위의 순서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된다. 나아가 이어지는 계단에서의 동선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한문본이 “則攜往饌 如須下樓梯, 則男客讓女客近牆而行”이라 하여 행위 규범만을 제시하는 데 비해, 한글본은 “담과 벽이 갓가온 데로 흥흥게 하고”³⁹⁾와 같이 서술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부인의 근력이 약흔고로 의지하기 편게함이라”라는 한문본에 없는 이유를 부가한다. 이는 규범의 당위성을 선언하는 대신, 독자가 그 규범을 납득하고 실제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위의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한문본이 원칙과 기준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면, 한글본은 그 원칙이 실현되는 행위의 순서와 이동 동선을 명시하는 쪽으로 재구성한다. 즉 한문본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규정한다면, 한글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37) 「宴客」, 『西禮須知』 앞의 책, 8-9쪽.

38) 「손님을 청하야 잔치하느 법」, 『서례슈지』 앞의 책, 9쪽.

39) 같은 곳.

방식으로 서술이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시간 규범이 제시되는 방식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문본: 明禮之人, 遇人定時請宴, 則必依時預到. 間有矯者, 以遲爲佳, 實未必然, 如客中業有十人, 或八人, 先到, 腹已飢而強待, 久等不來, 衆必問未到者, 爲何客, 既而遲到, 入座同食, 如有差錯, 衆易訾議⁴⁰⁾

한글본: 레를 아는 스톱은 타인의 잔치에 청혼 썩을 어긋지 안코 진시 가거니와 혹 교만무레흔 스톱은 공연이 덕을 어긋여 왓 늦게 가는 것시 존귀흔 테모라 흐는지라 그러나 이는 덕불가흐니 만일 열스톱 중에 팔구인은 먼저 와서 오리 기다려도 오지 아니흐면 필연 그 스톱의 성명을 무를디라 그 칙망을 엇지 면흐리오⁴¹⁾

한문본은 지각의 결과를 시간적 연쇄의 서사로 제시한다. 먼저 도착한 손님이 배를 굶주린 채 억지로 기다리고(腹已飢而強待), 지각자가 도착한 후 착석하여 식사하다 실수를 범하면 쉽게 비난 받는다는 단계적 전개가 이루어진다. 이때 지각의 피해는 기다리는 이에게 각인되는 것으로 가시화되며, 예절의 근거는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도출된다. 이에 비해 한글본은 이 연쇄 서사를 삭제하고 대신 지각자의 성명이 거론되고 책망을 받게 되는 사회적 귀결만을 제시한다. 지각의 피해가 타인으로부터 지각한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이동한 것이다. 이는 예절의 작동 원리가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매개로 작동하는 관계적 질서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宴客」에서 한글본은 연회 상황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행위 주체가 따를 수 있는 구체적 절차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그 규범의 위반이 초래하는 사회적 결과를 명시함으로써 규범 준수의 동기를 조직한

40) 「宴客」, 『西禮須知』 앞의 책, 9쪽.

41) 「손님을 청혼야 잔치흐는 법」, 『서례슈지』 앞의 책, 10쪽.

다. 이는 연회가 식사 행위가 아니라 다수의 참여자가 얽힌 사회적 관계를 가시화하고 재확인하는 공적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나아가 이 항목은 교제 관계가 사적 차원을 넘어 공적, 집단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국면을 조직한다는 점에서 『西禮須知』의 번역이 일차적인 예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교제의 형성·유지·확장이라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규범 체계로 재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結交」, 「談敘」, 「宴客」의 번역 양상을 종합해 보면, 『西禮須知』는 관계의 형성 → 담화의 운영 → 집단적 교섭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교제 중심의 규범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본이 이러한 구조를 규범적 원리의 형태로 제시한다면, 한글본은 이를 구체적인 행위 지침과 장면 중심 서술로 전환함으로써 교육 가능한 지식으로 재구성한다. 이는 조선에서의 번역이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새로운 교제 질서를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戒禮須知』는 지금까지 살펴본 『서례수지』(한문본과 한글본 통칭)와 달리 규범을 조직하는 방식 자체에 차이를 보인다. 앞선 2장에서 서술했듯 이 텍스트는 「飲食宜戒」, 「衣飾宜戒」, 「公處宜戒」, 「言辭宜戒」 등으로 마땅히 경계할 것들의 대상을 생활 영역이나 행위 범주로 제시한 뒤, 그에 맞는 예법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교제 행위를 일련의 절차로 구성하기보다, 특정 상황이나 공간, 장소에서 마땅히 경계해야 할 행위를 범주화해 규범으로 배열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客房宜戒」에서 손님을 방문했을 경우, 부재 중 명함을 남기는 방식, 명함을 접는 행위, 전달 방식 등 세부적인 상황별 행위를 금지 조항의 형태로 규정하며,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의 미시적 동작까지 통제하려는 특징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서례수지』에서처럼 방문이라는 행위를 교제를 위한 하나의 절차로 조직하기보다, 특정 상황에서

피해야 할 행위를 규제하거나 규범을 범주화하여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식사나 연회와 관련한 규범에서도 『戒禮須知』는 음식의 가격을 묻지 말 것, 과음을 삼갈 것, 식사 중의 태도를 절제할 것과 같이 개인의 욕망과 표현을 억제하는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식사 행위를 사회적 교섭의 장이 아니라, 개인의 절제와 품위를 시험하는 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식사 과정에서의 발화나 행동은 세밀하게 제한되며, 규범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위주로 배열된다. 언어와 담화 규범도 크게 다르지 않다. 『戒禮須知』는 말하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금지 사항을 나열한다. 가령 큰 소리로 말하지 말 것, 특정인만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하지 말 것, 타인을 곤란하게 하는 화제를 꺼내지 말 것과 같이 대화 상황에서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이 다수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담화를 하나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조직하기보다, 개별 발화를 규제하는 규칙의 집합으로 제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西禮須知』의 조선 내 번역은 언어적 전환을 넘어 교제 행위를 중심으로 한 규범 체계의 재구성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문본이 서양 예법의 원리와 질서를 규범적 명제로 제시하는데 비해, 한글본은 이를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 절차로 전환함으로써 교제의 형성·유지·확장이라는 전 과정을 조직하는 실천 가능한 지식으로 재편한다. 특히 「結交」, 「談敘」, 「宴客」의 항목은 각각 관계의 형성, 담화의 운영, 집단적 교섭이라는 교제의 핵심 국면을 구성하며, 이들 항목의 번역 양상은 규범이 개념적 범주에서 구체적 행위 지침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서례슈지』는 『西禮須知』의 내용을 계승하면서도, 그 핵심을 교제 행위의 실천 가능성에 두고 재구성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西禮須知』의 번역은 서양 예법 지식의 도입이 아니라, 관계 형성과 담화 운영을 중심으로 한 교제 규범의 선택적 수용이자 교육적 전

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이 문명개화를 열망하는 지식인과 학생층⁴²⁾을 넘어 폭넓게 유통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전환이 실제 교육 및 독서 유통의 맥락 속에서 작동했음을 방증한다.

반면 『戒禮須知』는 규범을 절차로 조직하기보다 금지와 경계를 중심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차이는 조선에서 서양 예법이 일괄적으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교제 현실과 교육 맥락에 부합하는 요소가 선택적으로 변형·재배열되는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다만 『戒禮須知』의 규범이 이후 조선의 다른 예법서나 생활 지침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 재배치되었는지는 별도의 실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西禮須知』와 『戒禮須知』의 상이한 수용 양상은 근대 초기 서양 예법에 관한 지식이 조선에 유입된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활용된 것이 아니라, 규범의 작동 방식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재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선에서의 서양 예법 수용은 번역된 텍스트의 존재 여부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규범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교제 질서 속에 재배치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번역 연구를 넘어, 근대 초기 서양 지식이 실제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5. 마무리

본 연구는 『西禮須知』와 『戒禮須知』를 동일한 번역·출판 맥락 속에

42) 『서레수지』는 독립협회 회원들과 회흥학교와 같은 사립학교에 기부, 의연된 바 있다. 『독립신문』, 1898.5.10, 3면 잡보 및 「會興學校義捐金額」, 『황성신문』, 1906.8.11, 4면 광고. 여기에 대해서는 권두연, 앞의 2022 논문, 142-146쪽 참조.

서 함께 검토함으로써, 근대 초기 조선에서 서양 예법에 관한 지식이 어떠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되었는지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가 주로 『西禮須知』의 번역과 활용에 주목하여 이를 조선 내부의 교육사적·문화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 왔다면, 본고는 『戒禮須知』와의 관계 속에서 이 텍스트의 성격을 재위치시키고, 나아가 조선이 동일한 계열의 예법서 가운데 어떠한 지식을 선택하고 배제하였는 가라는 문제를 중심에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청말 상해의 번역·출판 체계 속에서 두 텍스트의 간행 맥락과 항목 구성, 서술 방식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西禮須知』가 교제 장면의 전개 과정에 따라 예법을 배열하고 관계 수행의 절차를 중심으로 규범을 조직하는 반면, 『戒禮須知』는 생활 영역과 규범 범주를 기준으로 금지와 경계를 배열하는 텍스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서양 예법을 다루면서도 두 책이 서로 다른 실용적 목적과 활용 맥락을 전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조선 내 유입과 수용 양상을 서지 자료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두 텍스트가 모두 상해 서점 유통망과 집옥재 장서 체계를 거쳐 조선에 유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수용 과정은 비대칭적으로 전개되었다. 『西禮須知』는 학부 교과서로 번역·간행되고 한글본으로까지 확장되며 제도적 수용의 경로를 확보한 반면, 『戒禮須知』는 장서와 서목의 차원에서 확인될 뿐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활용되지 않았다. 이는 조선에서 서양 예법 지식의 수용이 외래 지식의 단순한 전파가 아니라, 교육과 교제 현실에 부합하는 지식에 대한 선별과 재배치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西禮須知』의 한문본과 한글본의 대조를 통해 조선에서의 번역은 언어적 전환에 그치지 않고 규범의 성격과 전달 방식에 변화를 수반한 작업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한문본이 예법의 원리와 질서를 규범적 명제의 형태로 제시한다면, 한글본은 이를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 절차

로 전환하여 독자가 실제 교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으로 재편한다. 「結交」, 「談敘」, 「宴客」의 항목에서 확인되듯, 규범은 관계의 형성·유지·확장이라는 교제의 전 과정을 따라 조직되며, 특히 발화 방식이나 연회 참석과 같은 행위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작동하는 관계적 질서로 구체화된다. 이는 『西禮須知』의 번역이 서양 예법의 개념적 이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제 행위를 수행 가능한 절차로 조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근대 초기 서양 예법에 관한 지식 수용을 단순한 번역의 결과로 보지 않고, 규범의 구성 방식과 활용 가능성에 따라 선별·변형·재배열되는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특히 『西禮須知』를 교제 중심의 규범서로 재정의하고, 『戒禮須知』와의 비교를 통해 번역되지 않은 텍스트의 위치와 의미까지 함께 고려함으로써, 서양 예법에 관한 지식 수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본고의 연구 범위상, 『戒禮須知』의 규범이 조선의 다른 예법서나 생활 규범서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재배치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실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또한 서양 예법이 이후 신문, 교과서, 생활 지침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어떻게 재확산되고 변형되었는지에 대한 후속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근대 초기 교제 담론과 생활 규범의 형성 과정을 보다 장기적이고 입체적으로 해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西禮須知』와 『戒禮須知』의 상이한 수용 양상은 근대 초기 조선이 서양 예법 지식을 일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당대의 외교·교육·교제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재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서양 지식의 유입을 단지 수용이나 전파의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와 활용 가능성에 따라 선별되고 조직되는 능동적 과정으로 파악하게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傅蘭雅 輯, 『西禮須知』, 光緒12年(1886), 1冊.(규장각 소장본)
傅蘭雅 輯, 『戒禮須知』, 光緒12年(1886), 1冊.(규장각 소장본)
학부편집국, 『西禮須知』, 1902(重刊), 1冊.(연세대 소장본)
학부편집국, 『서례수지』, 1902(重刊), 1冊.(연세대 소장본)
『集玉齋書籍調査記』(규장각 소장본)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장서각 소장본)
『독립신문』, 『황성신문』

2. 단행본

- 윤지양, 『고종, 근대 지식을 읽다』, 산지니, 2020.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허재영 엮음, 『(존 프라이어 著) 서례수지』, 경진출판, 2015.

3. 논문

- 강미정·김경남,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의 중국 번역 서학서 수용 양상과 의의」, 『동악어문학』 71, 동악어문학회, 2017, 253-288쪽.
권두연, 「근대 초기 서양 예법서의 등장과 『교제신례』」, 『반교어문연구』 제55집, 반교어문학회, 2020, 71-112쪽.
_____, 「근대 초기 지식의 편집과 중간 유통자에 대한 고찰」, 『반교어문연구』 제57집, 반교어문학회, 2021, 109-148쪽.
_____, 「교제의 필요성과 서양 예법서의 간행」, 『반교어문연구』 제61집, 반교어문학회, 2022, 131-160쪽.
김경혜, 「上海에서의 王韜」, 『한중인문학연구』 28, 한중인문학회, 2009,

309-331쪽.

- 오지석, 「개화기 서양예절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55,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23, 203- 236쪽.
- 유춘동, 「『서례수지(西禮須知)』에 첨부된 「신소설 시책집의 주의」에 대하여」, 『근대서지』 제28호, 근대서지학회, 2023, 57-64쪽.
- 윤영도, 「19세기 중엽 관립 번역기구와 근대 언어공간의 형성」, 『중국어문학논집』 29, 중국어문학연구회, 2004, 265-287쪽.
- _____, 「中國 近代 初期 西學 翻譯 研究: 『萬國公法』 翻譯 事例를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혜정,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에 나타난 19세기 후반 중국서적 판매와 조선 유입」, 『서지학연구』 80, 한국서지학회, 2019, 361-379쪽.
- _____, 「集玉齋書籍目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9.
- 장영숙, 「『集玉齋書目』 분석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서적 수집 실상과 활용」, 『한국근현대사연구』 61,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7-39쪽.
- 전상욱, 「세책 대출장부 연구 1-세책 대출장부의 유형과 실상」, 『열상고전연구』 27집, 열상고전연구회, 2008, 361-396쪽.
-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호, 진단학회, 2005, 263-297쪽.
- 허재영, 「화법 교육사의 차원에서 본 『서례수지(西禮須知)』 연구」, 『화법연구』 29, 한국화법학회, 2015, 211-232쪽.
- _____, 「근대 중국의 서양서 번역·보급과 한국 근대 학문에 미친 영향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76집, 한민족어문학회, 2017, 67-103쪽.

<Abstract>

The Introduction and Selective Appropriation of
Western Etiquette Texts in Early Modern Korea
: Focusing on *Seorye-suji*(西禮須知) and
Gyerye-suji(戒禮須知)

Kwon, Du-Yeon*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ation relationship between *Seorye-suji* (西禮須知) and *Gyerye-suji*(戒禮須知), Western etiquette manuals compiled and published in Shanghai in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elucidates the structure of selective appropriation through which Western etiquette knowledge was received in early modern Korea. Although produced within the same publication context, the two texts differ markedly in how they organize etiquette knowledge. *Seorye-suji* arranges practical norms according to the sequential unfolding of social interaction—introduction, banquet, visit, and conversation—whereas *Gyerye-suji* classifies prohibitions and regulations by domains of everyday life such as food, dress, space, and speech. Wang Tao's prefaces reinforce this distinction, framing the former in terms of practical norms for civilizational exchange and the latter in terms of ethical self-cultivation, demonstrating that the two texts were conceived for fundamentally different contexts of use. Both texts were introduced into Joseon through the same channels—the Shanghai bookselling network and the Jipokjae royal library collection—yet their subsequent reception developed asymmetrically. Only *Seorye-suji* secured an

* Hansei University.

institutional foothold, being translated and published as a Ministry of Education textbook and further disseminated in a vernacular Korean edition. *Gyerye-suji*, though confirmed as having entered Joseon through bibliographical records and extant holdings at the Kyujanggak, was never translated or institutionally utilized, and bibliographical evidence suggests it was not clearly categorized as an etiquette text within the royal library system. The translation of *Seorye-suji* constituted not a mere linguistic conversion but a thoroughgoing reconstitution of normative content and mode of transmission. Whereas the classical Chinese text presents the principles of etiquette as compressed normative propositions, the vernacular Korean edition reformulates them as concrete situational procedures and sequential behavioral instructions, restructuring them as practical knowledge directly applicable to real social interact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reception of Western etiquette knowledge in early modern Korea was not a passive importation but an active process of selection and reconstitution shaped by the realities of contemporary social interaction and education. By situating *Seorye-suji*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East Asian translation publishing and by accounting for the significance of the text that was not translated, this study propos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selective appropriation of Western etiquette knowledge in more comprehensive terms.

Key Words: *Seorye-suji*(西禮須知), *Gyerye-suji*(戒禮須知), selective appropriation, social interaction norms, translation and reconstitution, Western etiquette

■ 논문접수 : 2026년 03월 23일

■ 심사완료 : 2026년 04월 10일

■ 게재확정 : 2026년 04월 10일

